추 천 사

팔만대장경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 사천 법문이 오롯이 담겨 있는 우리 불교문화의 정수입니다. 또한 장구한 시간을 들여 완성하였고 오래 동안 인류와 숨결을 함께해 온 세계 정신문화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올해 간행 1000주년을 맞는 고려대장경은 몽고의 침략에 대응한 우리 선조의 불굴의 의지 표현이며, 민족의 평안과 풍요의 발원을 담은 생명의 불사의 결정체입니다.

국가의 재앙을 미연에 막고 기아와 질병, 재난 등을 치유하며, 동시에 국가의 평안과 풍요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기원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시대 화두는 자유와 평화, 정의와 평등, 번영과 분배의 실현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지혜와 자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의 시대정신인 자유, 평등, 평화, 정의의 가치 실현으로 되살아나야 합니다. 시대를 넘어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선조들의 간절한 서원과 나아가 인류의 염원이 창조적으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는 대한불교청년회 성전편찬위원회가 1963년 최초로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간행한 이래 지속적으로 한글대장경을 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대한불교청년회가 현대판 우리말 팔만대장경 증보개정판을 출간하는 의미를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접하고 가르침을 저마다의 마음에 깊이 새기어 부처님의 크나크신 지혜의 바다를 체험했으면 합니다. 이 책과 함께한 인연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이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